

KDB DAEWOO DAILY

2013. 9. 17 (화)

코스피지수 (9/16)	2,013.37P(+19.05P)
코스닥지수 (9/16)	526.20P(-4.69P)
KOSPI200지수 12월물	265.50P(+2.40P)
중국상해종합지수 (9/16)	2,231.40P(-4.82P)
NIKKEI225지수 (9/13)	14,404.67P(+17.40P)
원/달러 환율	1,082.20(-4.80)
엔/달러 환율	98.90(-0.69)
국고채 수익률 (3년)	2.87(-0.06)
유가(WTI) (9/16 21:25)	106.61(-1.10)
국내주식형펀드증감(9/13)	-4,926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9/13)	-785억원
고객예탁금(9/13)	191,912억원(+2,878억원)
신용잔고(9/13)	43,288억원(+159억원)

이슈코멘트

서머스 사퇴와 관련한 갑론을박

퀀트분석

기업 이익으로 본 유럽 경기회복

관심지표

2013년 3분기 자산별 수익률 점검

기업분석

제일기획[매수] - 문지현: 글로벌 광고주 테마에 편입!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서머스 사퇴와 관련한 갑론을박

채권 :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채권 금리 하락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가장 민감도가 높은 자산인 채권시장은 ‘매파적(hawkish)’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 서머스의 사퇴로 인해 안도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연준의장으로 엘런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화된 점은 채권시장에 긍정적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8월부터 차기 연준의장 Survey에서 서머스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2.6~2.7% 레인지에서 머물던 미국채 10년 금리는 2.9~3.0% 레인지까지 상승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서머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어 금리레벨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서머스의 사퇴로 미국채 10년 금리는 재차 레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연내 미국채 10년 고점은 이전에 기록한 3.0%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FOMC에서 Tapering 강도가 결정된 이후 미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금리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적어도 서머스 취임에 대한 불안으로 매수를 주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경기둔화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여지를 주었다고 본다. 연말까지 미국채 10년 금리는 2% 중반까지 하락 되돌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국내 채권금리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채권 전략 운영팀)

경제 : 신흥국이 최대 수혜

서머스 사퇴의 최대 수혜는 채권과 환율을 포함한 신흥국 자산인 것 같다. 당분간 시장은 차기 의장으로 엘런에 무게를 두겠지만, 실제 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나름 입지에 손상을 받은 만큼 엘런을 당장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온건한 비둘기파로 알려진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과 팀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의 레임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Tapering은 하더라도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미국 소매판매/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하락을 보면 하반기 미국 GDP는 2%를 넘기가 버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머스 리스크 완화는 미국과 신흥국 간 간격 좁히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 허재환)

주식 : 원화 강세 베팅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지속

서머스 자진 사퇴로 내년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질 것이다.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수행할 유인이 커지고 원화 강세 베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강달러 분위기로 그간センチ먼트가 가장 부진했던 금 등 원자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박승영)

주식: 이머징아시아 내에서의 차별화 완화

서머스 사임으로 그동안 움츠러 들었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총량적 팽창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흥 시장 내에서 국가별로 나타났던 증시 차별화 현상이 완화되면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증시가 저점에서 10% 이상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인도 증시는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했다. 공히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의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기대된다. (투자전략 한치환)

종합 : 주식과 채권이 같이 가는 국면

양적완화 무용론을 주장해 왔던 서머스의 사퇴는 글로벌 자산 전반에 호재이다. 달러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향후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서머스 사퇴 이후에 나올 백악관의 반응이 관심사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엘런을 유력한(바람직한!) 연준 의장 후보로 생각해왔지만, 오바마는 엘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 서머스 사퇴 이후 엘런 대세론이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중국 경기이다. 연준 의장과 관련된 논쟁은 기본적으로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작된 이후 KOSPI는 2011년에 2,200p대에 올랐지만, 2012년 이후에는 2,000p 내외가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다. 글로벌 유동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가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에 대해 우리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주요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이미 끝나 10월 초까지는 중국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개념적인 주가 상승의 목표치는 2012년 초 글로벌 유동성 랠리 국면에서 KOSPI가 도달했던 2,050p 수준이다. 1,800~2,000p 박스권 장세의 일시적 오버슈팅 국면이었던 2012년 초 장세는 중국 경기 회복 없이 유동성의 힘만으로 도달했던 지수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투자전략 김학균)

기업 이익으로 본 유럽 경기회복

최근 유럽 국가들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 대비 견조한 GDP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조업 PMI 역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8월 유로존의 PMI 지수는 51.4로 2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3분기에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향후에도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PMI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지에 대해 기업 실적으로 판단해 보았다.

2011년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및 PIGS 국가들의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을 바닥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내수주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기서 내수 매출은 유럽 역내 매출을 포함함).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수출주의 이익 보다 내수주가 2배 이상 높은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내수 부분(역내 매출 포함)의 이익 증가가 높은 것을 보면 특정 국가만의 개선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회복의 기운이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국가들의 내수 부분 중 2012년 대비 2013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금융 등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기 회복은 유럽 역내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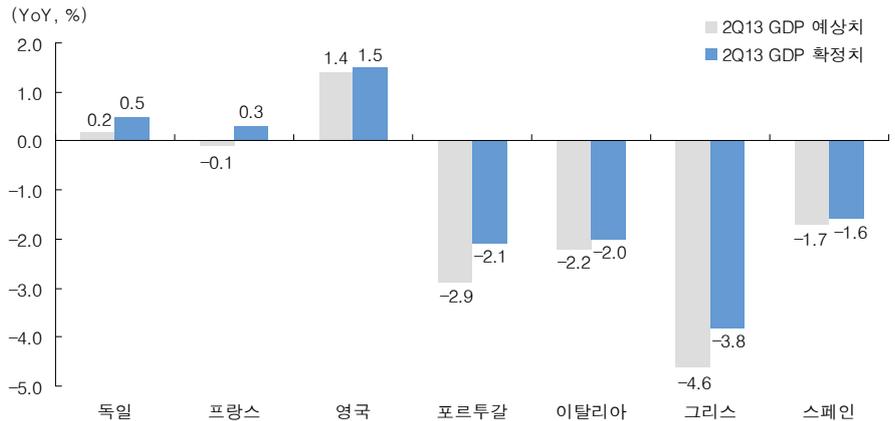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금융 업종의 이익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PIGS 국가에서는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업종도 높은 이익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작된 소비가 경기민감소비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 PIGS
모두 2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 기록**

유럽 국가들은 2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조성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 및 PIGS 국가들의 2분기 GDP 성장률은 모두 예상치 대비 나은 GDP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림 1. 유럽 국가들, 2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 기록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독일, 프랑스, 영국, PIGS
모두 제조업 PMI 상승 중**

독일, 프랑스, 영국, PIGS 국가들의 경기회복 지속 가능성 높아짐

최근 발표된 8월 유로존의 PMI 지수는 51.4로 2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3분기에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독일은 51.8을 기록하였으며, 재정위 기국인 이탈리아 (51.3), 그리스 (48.7), 스페인 (51.1) 또한 긍정적인 PMI를 기록하였다.

향후에도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PMI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지에 대해 기업 실적으로 판단해 보았다.

그림 2.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제조업 PMI는 상승 중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PIGS 국가들의 제조업 PMI도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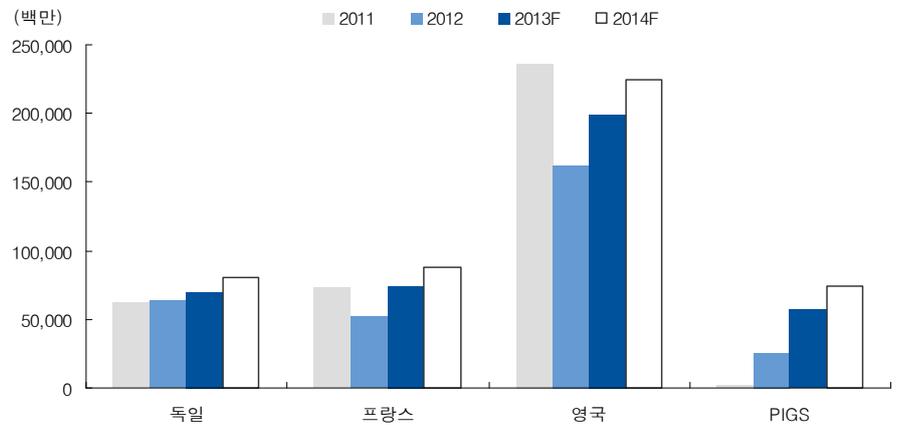


주: 그리스의 제조업 PMI는 2012년 2월부터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러한 경기회복세는 유럽 기업들의 연간 실적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4>는 2011년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및 PIGS 국가들의 기업 실적을 나타냈는데, 2012년을 바닥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독일은 10.4%, 프랑스는 42.9%, 영국은 2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 2013년과 2014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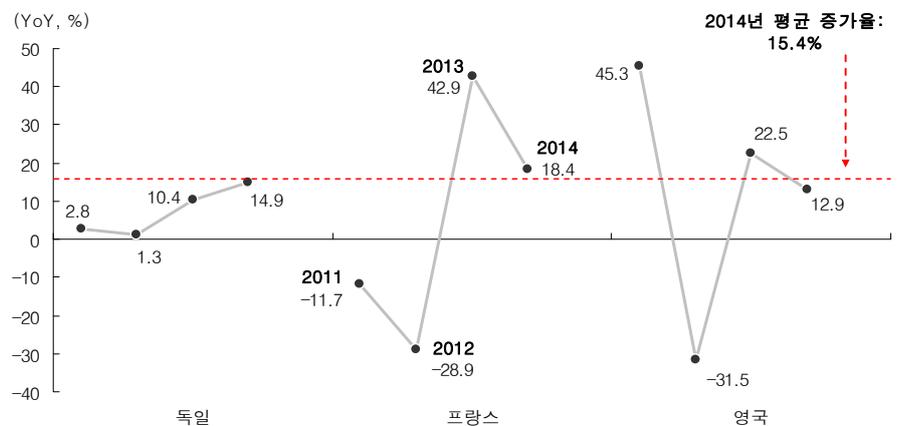
<그림 4, 5>를 통해 기업 실적으로 봤을 때, 유럽 기업들은 계속 개선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 회복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4. 유럽 기업들의 연간 실적 개선 중 (순이익 기준)



주1: PIGS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기업들의 연간 당기순이익 합산
 주2: 독일, 프랑스, PIGS는 유로, 영국은 파운드
 자료: Capital IQ,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유럽 기업들은 2012년을 바닥으로 실적 개선 중 (순이익 기준)



자료: Capital IQ,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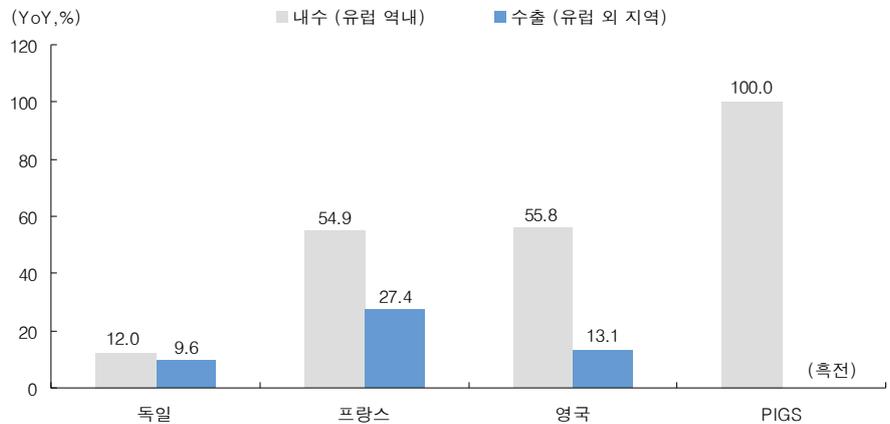
독일, 프랑스, 영국 및 PIGS 국가들의 내수 부분 이익 성장은 수출 부분보다 양호

역내 매출 성장세 견조

유럽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내수주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에서의 수출주는 유럽 외의 매출 비중이 4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내수주는 유럽 역내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수출주의 이익 보다 내수주가 2배 이상 높은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내수 부분(역내 매출 포함)의 이익 증가가 높은 것을 보면 특정 국가만의 개선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회복의 기운이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유럽 기업들의 내수주 이익 증가율이 수출주 이익증가율 보다 더 높다



주1: PIGS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 합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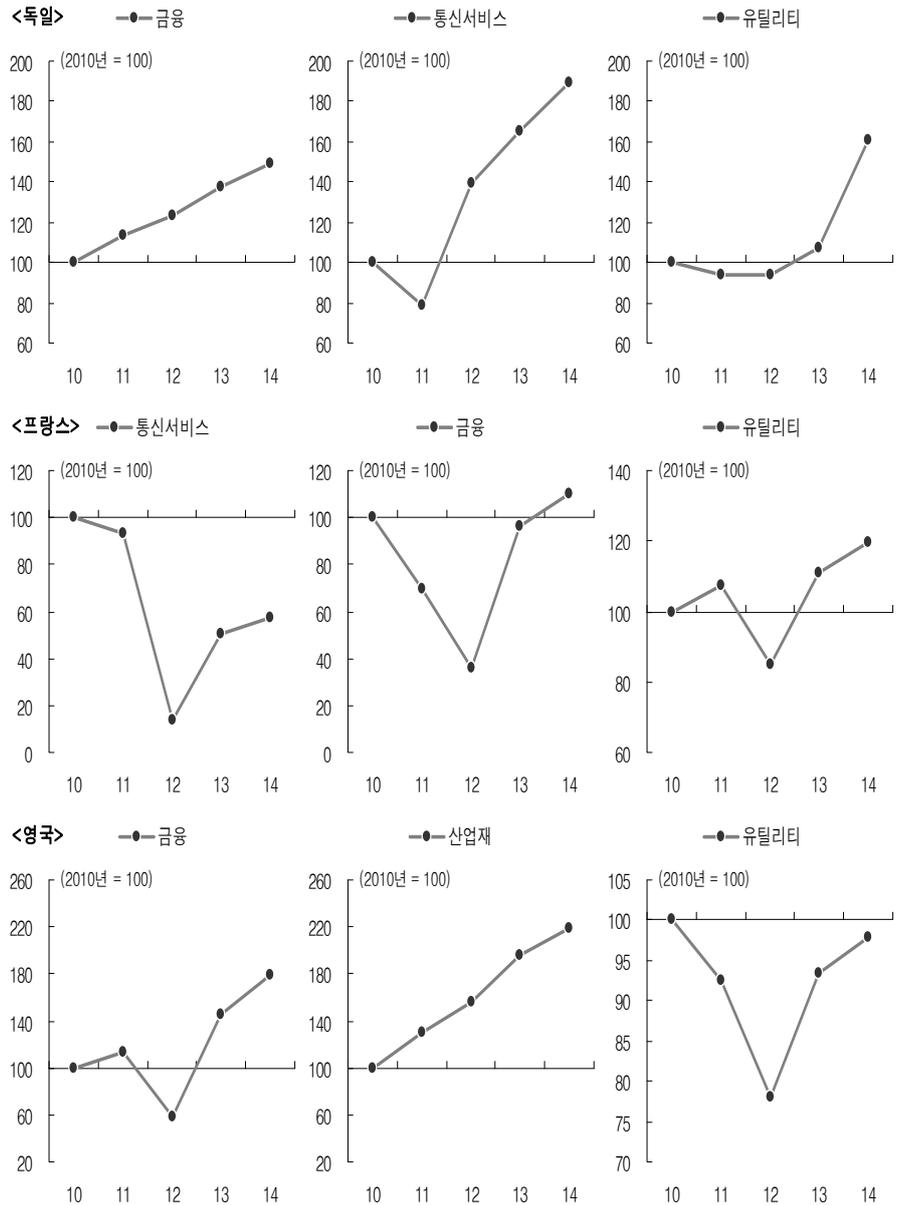
주2: 2013년 예상 순이익 증가율 (전년 대비)

자료: Capital IQ,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국가들의 내수 부분 중 2012년 대비 2013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금융 등이다. 가장 많이 오른 통신서비스 업종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의 수혜, 유틸리티 업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영향, 금융 업종은 2012년 대비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감이 완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7>은 유럽 국가들의 내수 관련 업종의 이익증가 추이이다. 2012년을 바닥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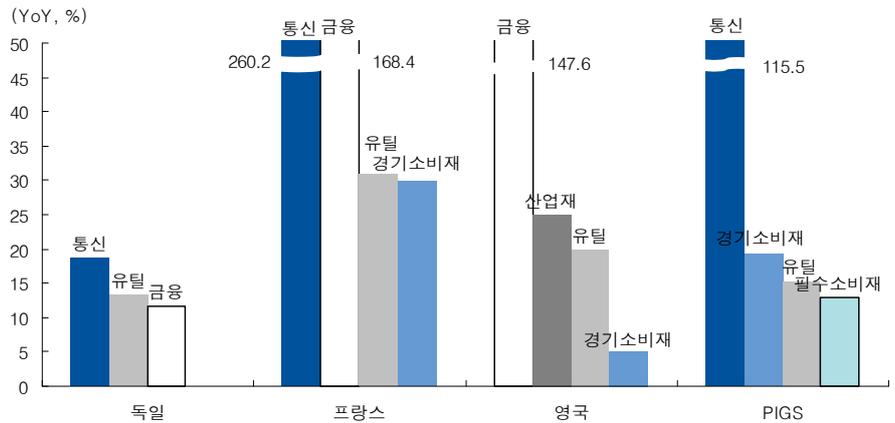
그림 7. 독일, 프랑스, 영국 내수 관련 업종의 이익증가 추이: 통신, 유틸리티, 금융 업종 개선 추세



자료: Capital IQ,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금융 업종의 이익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PIGS 국가에서는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업종도 높은 이익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작된 소비가 경기민감소비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유럽 기업 내수주 업종별 순이익 증가율



주1: PIGS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 합산 증가율

주2: 2013년 예상 순이익 증가율 (전년 대비)

자료: Capital IQ,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강수연 02-768-3057 sooyeon.kang@dwsec.com
 남상구 02-768-3501 sangkoo.nam@dwsec.com

2013년 3분기 자산별 수익률 점검

- MSCI 지수는 2013년 3분기, 9월 둘째주까지 신흥시장 대비 선진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섹터별로는 소재 및 산업재 강세 나타냄
- 국가별 국제지수는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과 더불어 그리스, 스페인 등이 양호한 수익률을, 상품 중에는 에너지가 상대적 높은 수익률 보임
- 선진국 통화는 달러대비 모두 절상을 보였고, 신흥국 통화 중에는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가 절상 됨

그림 1. MSCI지수의 지역별 증감 (자국통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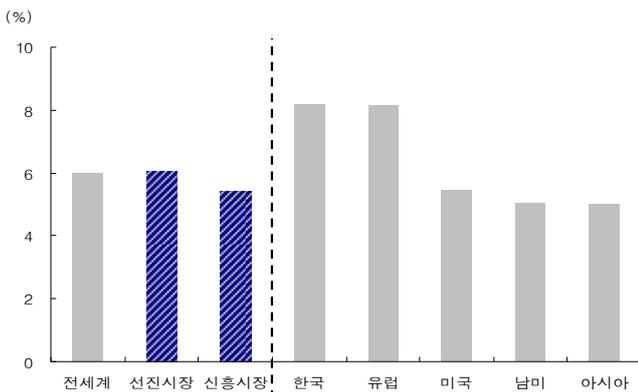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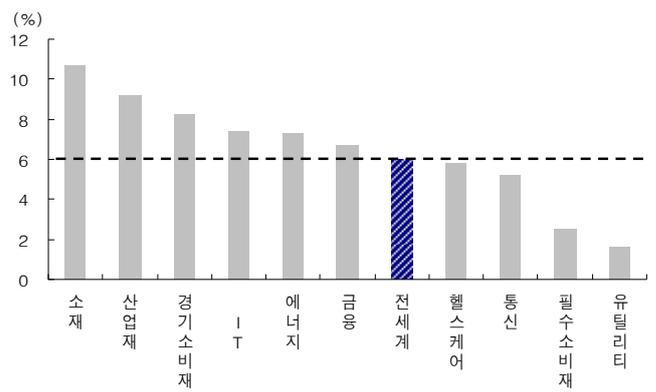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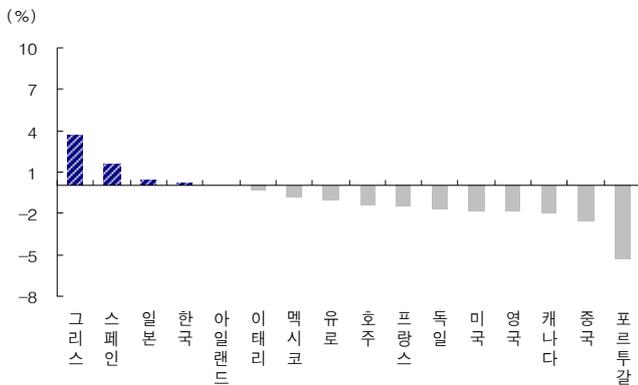
그림 2. MSCI지수의 섹터별 증감



주: 2013년 2분기말 대비, 자료: Thomson Datastrea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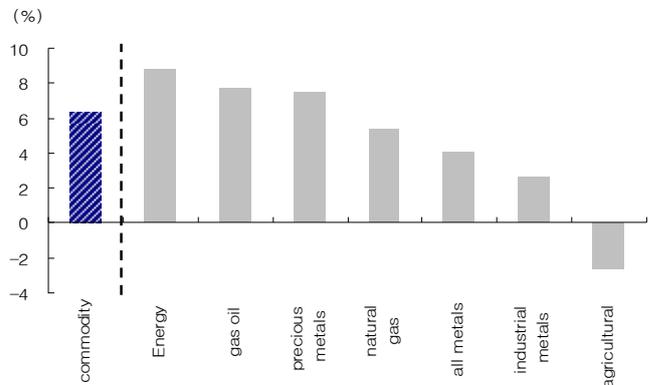
주: 2013년 2분기말 대비, 자료: Thomson Datastrea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국가별 국제 총수익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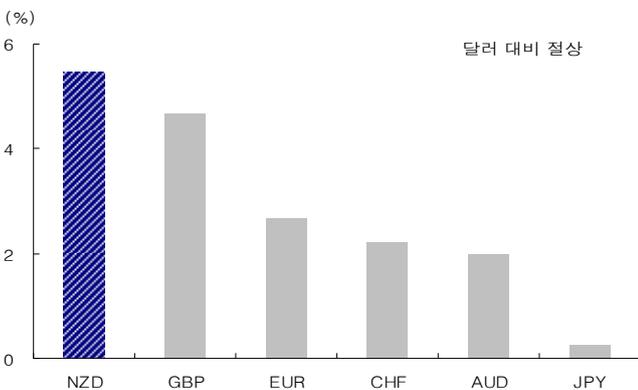
주: 2013년 2분기말 대비, 자료: Thomson Datastrea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S&P GSCI 상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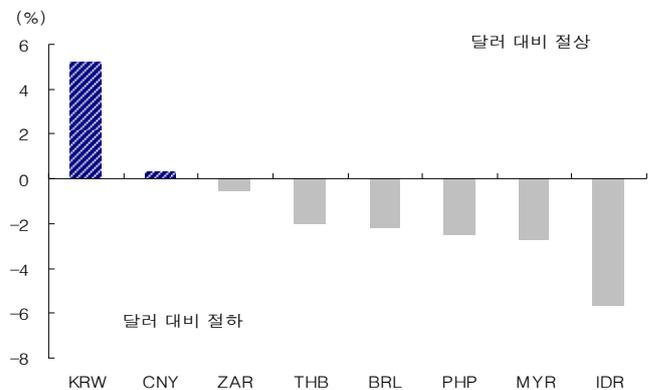
주: 2013년 2분기말 대비, 자료: Thomson Datastrea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달러대비 선진국 통화의 절상률



주: 2013년 2분기말 대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달러대비 신흥국 통화의 절상/절하



주: 2013년 2분기말 대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제일기획

(030000/매수)

글로벌 광고주 테마에 편입!

- 3분기 미국 및 중국 현지에서 신규 광고주 개발 확인
- 글로벌 광고 기업들 M&A, 내년 스포츠 이벤트, 4분기 성수기 기대로 주가 상승세
- 제일기획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34,000원 유지

1. 추석 연휴 전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전일 탐방을 통해 제일기획의 최근 해외 영업 현황 및 전망, 실적 추이 등을 확인했다.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및 갤럭시 기어 출시 행사 'Unpacked Episode 2'와 IFA 전시 행사 물량이 제일기획 매출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삼성전자 외의 비계열 대형 광고주도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현지 신규 광고주 개발이 순조로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3분기 실적은 해외 매출의 규모 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제일기획의 글로벌 영업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영업 환경적인 변수를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은 충분히 매수 진입할 만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4분기의 광고 성수기 및 갤럭시 노트3 출시 마케팅 물량, 동계올림픽 사전 마케팅 등을 소화한 후 내년에도 분기별로 광고 영업 여건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제일기획은 2014년 1분기 동계올림픽 개최시 IOC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 활동을 대행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전통적인 광고 성수기이며, 지방선거로 광고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름에는 브라질 월드컵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가을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될 예정으로, 삼성전자가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어 있다. 오랜만의 수도권에서의 스포츠 이벤트이자, 현 정부의 첫 글로벌 이벤트인 점이 주목된다.

최근 글로벌 광고 기업들의 주기도 강세를 띠고 있다. 글로벌 광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1) M&A 등 글로벌 사업 확장 움직임, 2) 광고 호재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3) 4분기 광고 성수기 기대감 등이다. 제일기획도 이상 세 가지 테마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제일기획은 단기적으로 실적 등의 숫자가 안정적이며, 4분기 및 내년의 실적 변수가 확인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광고주 주가 흐름 등도 우호적인 상황이다. **제일기획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4,000원을 유지한다.**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1,450	1,758	2,365	2,912	3,343	3,791
영업이익(십억원)	139	107	126	164	212	268
영업이익률 (%)	9.6	6.1	5.3	5.6	6.3	7.1
순이익(십억원)	108	93	94	124	164	203
EPS (원)	935	811	814	1,081	1,425	1,768
ROE (%)	17.5	13.7	13.5	17.7	20.3	20.4
P/E (배)	14.8	23.4	26.5	23.2	17.6	14.2
P/B (배)	2.4	3.1	3.5	3.5	2.9	2.4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제일기획,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제일기획 해외 영업 동향: 로컬 광고주 개발에 주목

제일기획은 해외에서 주요 광고주인 삼성전자 광고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로컬 광고주 광고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미국에서 인수한 McKinney와 중국의 자회사 OpenTide China는 원래 광고 영업을 잘해왔던 회사들이는데, 최근 현지에서 신규 광고주도 개발되고 있어 이번 해외 실적은 내용 면으로도 만족스러운 전망이다.

그림 1. 독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및 갤럭시 기어 출시 행사



자료: Samsung, FirstPost

그림 2. 작년 미국에서 인수한 McKinney의 3분기 신규 광고주 보도

Durham ad agency McKinney lands cool new account: Mentos mints

Published: September 4, 2013

Recommend 0 Tweet 7 +1 2 PRINT E-MAIL

By David Ranil — dranil@newsobserver.com

Durham ad agency McKinney has just upped its cool factor.

It's been named the ad agency for Mentos mints and gum.

It's a significant win for McKinney, by far the Triangle's largest ad agency.

Perfetti Van Melle, the European confectionery company that makes Mentos, plans to spend more than \$30 million in the next 12 months to advertise the brand,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자료: News Observer

그림 3. 중국 자회사 OpenTide의 3분기 신규 광고주 보도

campaign Asia-Pacific

» Spikes Asia 2013

Asia-Pacific News Analysis Opinions Intelligence The Work Media Marketing Ev

Home » Expertise » Digital » Digital

Agricultural Bank of China picks OpenTide as digital AOR

Agricultural Bank of China, one of the top five national banks, called for a pitch in July 2013, which OpenTide won in mid-August. The incumbent was Catch Stone Advertising. OpenTide's scope of work will be creative, digital media buying, ad monitoring, and online PR. The Cheil-owned ...

주: AOR은 Agency of Record, 매체회사와의 계약에 임하는 광고주 지정의 광고회사, 자료: Campaign Asia

3. 글로벌 광고 기업 동향: 주가 상승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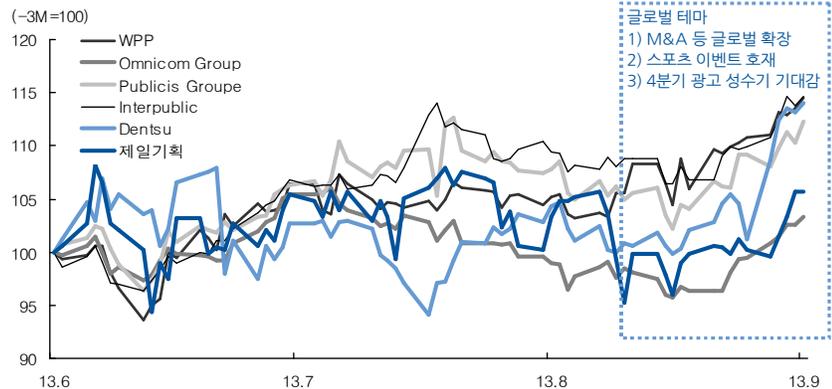
글로벌 광고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월 말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가 돋보인다. 현재 글로벌 광고 기업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1) M&A 등 글로벌 확장세가 발견되고 있다. 7월 28일에는 글로벌 2위와 3위 광고 기업인 Omnicom과 Publicis의 합병 발표가 있었다. 또한 작년에 글로벌 8위 Aegiss를 인수했던 일본 1위 Dentsu는 올해 9월 10일 CEO 인터뷰에서 20여개의 기업을 신흥국에서 더 인수할 것을 검토 중이란 기사가 보도된 후 주가가 좀더 상승했다. 공통적인 M&A 배경은 저성장하는 광고 시장 환경 속에서 지역 확대 및 디지털 마케팅 역량 보완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내년 스포츠 이벤트 호재가 부각되고 있다. 1분기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되고, 아시아에는 9월에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Dentsu는 9월 8일에 보도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뉴스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글로벌 광고 시장은 저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광고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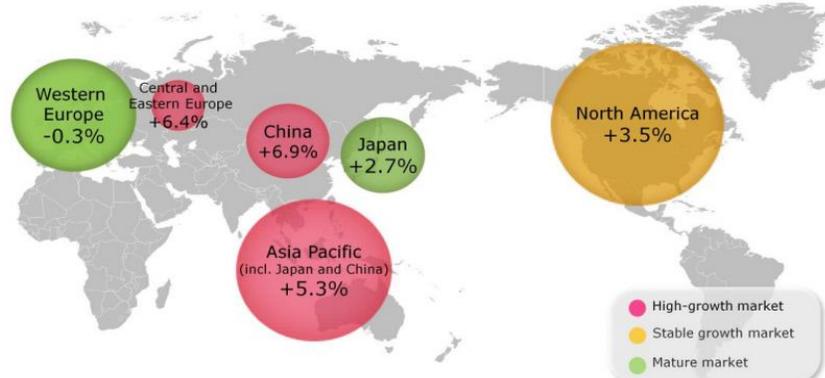
3) 단기적으로 4분기 광고 성수기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4분기는 광고주의 광고 예산이 소진되고, 연말 쇼핑 시즌 등이 겹치면서 계절적으로 좋은 분기이다.

그림 4. 최근 3개월간 글로벌 주요 광고 기업의 주가 추이



주: 7월 28일 Omnicom과 Publicis 합병 발표, 9월 10일 Dentsu 신흥국의 20여개 기업 인수 검토 보도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글로벌 광고 시장 지역별 성장률



주: 2013년 광고 시장 성장률 전망치, 원의 크기는 각 지역의 광고 시장 규모를 상대적으로 표현
자료: Carat, Dentsu

제일기획도 이러한 글로벌 테마에 편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M&A는 중국 등 신흥국과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삼성전자의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후원사 활동을 대항할 예정이며, 4분기 광고 성수기는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 광고 기업의 수익성과 Valuation 지표를 살펴보면, 제일기획은 작년보다는 낮은 PER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EPS 성장에 따라 Valuation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해외 현지 광고주 개발과 기업 인수, 인력 확보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외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고성장 시기로서 프리미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일본의 광고 기업 주식들은 높은 내수 매출비중과 낮은 수익성 및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한국의 제일기획보다 높은 Valuation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제일기획의 높은 해외 매출비중과 견조한 성장성, 높은 ROE, 주가의 Catalyst로서 작용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추가 기업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시 일본 광고 기업 대비 할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1. 글로벌 주요 광고 기업의 수익성과 Valuation 지표

(십억원, %, 배)

회사명	시가총액	영업이익률			PER			PBR			EV/EBITDA			ROE		
		12	13F	14F	12	13F	14F	12	13F	14F	12	13F	14F	12	13F	14F
제일기획(한)	2,882	5.3	5.6	6.3	26.5	23.2	17.6	3.5	3.5	2.9	13.8	12.9	9.1	13.5	17.7	20.3
Dentsu Inc.(일)	11,583	3.0	2.5	3.0	34.2	43.1	28.8	1.5	1.5	1.4	16.0	13.2	12.1	4.6	3.6	5.2
Hakuhodo Dy Holdings	3,032	2.5	2.8	2.9	22.5	17.2	15.7	1.2	1.1	1.1	5.8	5.6	5.3	5.6	7.3	7.7
Asatsu-Dk Inc	1,166	0.9	0.9	1.1	33.7	46.1	32.4	0.9	1.0	0.9	15.7	14.7	11.1	2.9	2.4	3.2
WPP PLC(영)	29,842	13.7	13.9	14.4	19.6	15.8	14.3	2.2	2.2	2.0	9.5	10.6	9.8	11.3	14.2	14.4
Omnicom Group(미)	18,091	12.7	12.9	13.1	17.1	16.7	15.0	5.5	5.1	4.8	9.6	9.6	9.1	31.0	29.3	33.8
Publicis Groupe(프)	18,807	16.0	16.2	16.5	16.6	16.9	15.5	2.7	2.5	2.2	9.0	10.5	9.8	19.1	16.8	16.7
Interpublic Group(미)	7,701	-	10.4	11.2	27.6	20.2	15.6	4.1	3.1	2.9	9.9	9.0	8.2	18.6	15.6	18.9
일본 평균		2.1	2.1	2.4	30.1	35.5	25.6	1.2	1.2	1.2	12.5	11.1	9.5	4.3	4.4	5.4
글로벌 그룹 평균		14.1	13.3	13.8	20.3	17.4	15.1	3.6	3.2	3.0	9.5	9.9	9.2	20.0	19.0	21.0
종합		7.7	8.1	8.6	24.7	24.9	19.4	2.7	2.5	2.3	11.2	10.8	9.3	13.3	13.4	15.0

주: Omnicom과 Publicis는 7월 말 합병 발표,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제일기획의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

(십억원, %)

	1Q12	2Q12	3Q12	4Q12	1Q13	2Q13	3Q13F	4Q13F	2011	2012	2013F
영업수익	421	615	607	721	564	713	743	892	1,758	2,365	2,912
영업총이익	102	147	145	187	135	181	193	232	458	581	741
본사	46	68	79	63	51	75	73	73	241	256	271
해외	56	79	66	124	84	106	120	159	217	325	469
영업이익	12	40	28	46	18	41	42	63	109	126	164
영업이익률	2.8	6.5	4.5	6.3	3.2	5.7	5.7	7.1	6.2	5.3	5.6
순이익	10	31	23	34	14	32	32	47	96	99	125
순이익률	2.3	5.1	3.7	4.7	2.4	4.5	4.3	5.3	5.4	4.2	4.3
영업총이익 비중											
본사	45.2	46.2	54.5	33.7	37.5	41.2	37.8	31.6	52.7	44.1	36.6
해외	54.8	53.8	45.5	66.3	62.5	58.8	62.2	68.4	47.3	55.9	63.4
YoY 성장률											
영업수익	36.3	44.5	34.2	26.3	34.0	15.9	22.4	23.6	21.3	34.5	23.1
영업총이익	22.2	29.7	28.6	25.8	31.6	23.4	33.1	24.4	13.9	26.8	27.6
국내	34.6	0.2	4.2	-4.1	9.1	10.2	-7.7	16.6	18.1	6.0	6.0
해외	13.6	52.0	44.9	46.9	50.3	34.7	82.0	28.4	11.1	41.5	44.6
영업이익	-10.5	29.0	22.2	8.8	52.1	3.3	52.8	38.0	-21.9	14.9	31.4
순이익	-21.6	20.7	1.8	-3.4	39.8	2.2	43.0	38.6	-12.1	3.7	26.0

주: K-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합산 순이익, 자료: 제일기획,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042.7 / 5일 -21646.1)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5098.2 / 5일 39681.7)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철강금속	283.9	-6,765.4	전기전자	-794.8	-7,263.3	전기전자	1,895.2	12,597.6	의약품	-16.6	62.6
운수창고	224.6	-55.8	서비스업	-563.9	-2,070.6	운수장비	1,577.7	5,532.6	섬유의복	-9.6	77.0
기계	104.2	516.9	운수장비	-376.9	-2,987.9	화학	429.8	3,135.0	비금속	0.6	10.0
금융업	53.4	-53.7	유통업	-307.1	-789.0	금융업	403.5	2,054.5	의료정밀	1.4	-8.3
섬유의복	2.0	-17.8	통신업	-213.3	-782.8	유통업	230.6	1,329.7	종이목재	5.3	35.6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 레버리지	682.8	4,909.9	KODEX 200	-761.2	-3,128.4	삼성전자	1,463.6	8,331.7	SK이노베이션	-153.2	341.1
SK하이닉스	328.3	-632.4	삼성전자	-730.3	-3,877.3	KODEX 200	823.8	3,833.0	LG디스플레이	-80.2	-169.6
대한항공	207.0	-	현대차	-226.3	-1,377.6	현대차	555.7	1,650.8	NHN엔터테인먼트	-69.6	-373.2
고려아연	187.6	2.8	NAVER	-186.9	-1,486.7	기아차	401.9	620.6	LG이노텍	-57.8	-153.2
SK이노베이션	122.3	-34.3	호텔신라	-166.8	-358.4	SK하이닉스	268.2	2,863.5	POSCO	-47.6	6,655.7
KB금융	107.2	318.8	제일모직	-148.9	-549.1	현대모비스	210.4	271.7	LG유플러스	-47.4	261.6
POSCO	77.6	-7,008.6	LG디스플레이	-135.4	-1,263.4	LG화학	163.3	796.8	코스맥스	-38.2	8.6
우리금융	73.7	185.9	KODEX 인버스	-132.6	-1,198.9	현대중공업	123.3	1,274.6	고려아연	-36.8	8.2
두산인프라코어	68.1	87.5	한진칼	-112.2	-	현대건설	123.0	244.2	대림산업	-35.0	210.9
대림산업	67.0	88.5	LG전자	-95.5	-969.6	삼성물산	119.0	173.9	한화케미칼	-30.3	46.5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18.4 / 5일 -1497.1)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20.0 / 5일 361.3)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오락.문화	55.8	-108.8	통신방송	-68.4	-257.5	제약	81.5	-283.6	소프트웨어	-26.1	-67.5
음식료.담배	29.8	142.8	IT부품	-64.8	-114.6	IT부품	40.0	-1.5	기계.장비	-19.5	63.3
기계.장비	15.2	-155.5	방송서비스	-40.3	-122.8	반도체	39.5	0.6	기타	-19.5	-19.4
금속	4.5	-5.9	통신서비스	-28.0	-134.7	컴퓨터서비스	27.1	15.8	통신장비	-13.7	5.8
인터넷	4.1	-57.3	소프트웨어	-23.7	-134.6	디지털컨텐츠	16.0	63.6	일반전기전자	-7.0	3.4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에스엠	60.0	4.2	CJ오쇼핑	-27.8	-129.0	셀트리온	87.7	-53.0	위메이드	-23.3	-75.1
아미코젠	30.1	55.8	SK브로드밴드	-26.7	-131.6	서울반도체	56.4	175.9	KG이니시스	-12.5	-72.1
젠타	11.0	37.2	KH버텍	-25.3	-48.7	게임빌	39.8	110.6	태웅	-9.9	29.5
차바이오앤	10.7	-10.2	CJ E&M	-14.7	-45.7	파트론	33.0	-37.9	스펙코	-8.8	8.2
조이맥스	9.7	40.1	메디톡스	-14.4	91.0	슈프리마	29.5	19.6	씨티씨바이오	-7.2	0.5
파트론	7.4	4.1	아트라스BX	-13.9	-7.9	사파이어테크놀로지	15.6	41.2	TPC	-6.8	8.5
서울반도체	7.2	-128.7	씨젠	-11.6	-15.0	파라디이스	10.3	116.8	루멘스	-6.3	-28.2
삼기오토모티브	6.9	4.9	이녹스	-11.3	-10.2	평화정공	8.7	50.1	유진테크	-5.8	4.9
세코닉스	6.2	17.5	하이제1호스팩	-9.9	-66.0	CJ E&M	8.1	14.0	농우바이오	-5.6	10.1
태웅	5.8	-2.9	모두투어	-9.4	-76.3	이지바이오	7.7	-12.6	미디어플렉스	-5.5	-10.9

※ 본 자료 중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대한항공	19,839.6	삼성전자	-65,445.5	SK하이닉스	20,839.9	대한항공	-11,820.1
SK하이닉스	8,198.0	KODEX 200	-65,392.3	KB금융	8,556.7	한진칼	-8,343.7
현대중공업	7,832.9	TIGER 200	-33,834.7	신한지주	7,348.5	효성	-7,759.1
고려아연	3,776.1	제일모직	-11,590.0	우리금융	5,566.9	KT	-7,681.0
LG화학	2,836.1	현대차	-11,382.5	두산중공업	5,326.7	호텔신라	-4,756.8
메리츠화재	2,264.7	NAVER	-10,568.2	SK이노베이션	4,940.7	KCC	-3,176.7
한화케미칼	2,172.7	LG전자	-10,151.3	고려아연	4,582.3	GS건설	-2,503.9
OCI	1,926.5	CJ제일제당	-8,296.0	삼성전자	4,523.9	엔씨소프트	-2,329.4
대림산업	1,660.0	호텔신라	-7,814.9	대림산업	4,274.9	NAVER	-1,902.7
KODEX 인버스	1,587.6	삼성화재	-7,621.5	삼성물산	4,041.1	LG디스플레이	-1,481.5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고려아연	1,682.2	SK하이닉스	-6,715.8	대한항공	5,075.1	삼성전자	-12,432.9
제일모직	1,400.4	KODEX 레버리지	-6,492.2	SK하이닉스	4,845.1	현대차	-9,907.8
OCI	817.8	현대중공업	-4,774.9	고려아연	3,381.3	LG디스플레이	-6,859.8
KODEX 인버스	627.9	SK C&C	-3,458.8	SK이노베이션	3,282.7	한국전력	-6,236.2
삼성SDI	588.0	삼성전자	-3,215.1	KODEX 200	2,992.4	신한지주	-4,014.7
LG전자	576.3	삼성물산	-2,763.2	롯데케미칼	2,936.0	호텔신라	-2,874.4
삼성테크윈	479.8	POSCO	-1,915.4	삼성화재	2,571.7	SK텔레콤	-2,829.0
풍산	459.8	LG화학	-1,362.0	OCI	2,567.4	NAVER	-2,809.9
대우조선해양	426.5	GS	-1,321.3	현대중공업	2,554.0	한국타이어	-2,635.7
만도	385.4	현대차	-1,275.2	삼성중공업	2,295.4	KT	-2,243.2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26,815.2	32,833.6	호텔신라	2,187.4	16,677.2
대한항공	6,451.3	20,698.5	LG디스플레이	8,017.0	13,536.7
KB금융	3,809.3	10,717.2	KODEX 인버스	382.0	13,260.6
우리금융	1,380.0	7,365.3	한진칼	620.6	11,223.5
두산인프라코어	2,816.1	6,807.5	LG유플러스	4,736.0	4,258.9
롯데케미칼	1,394.0	6,499.7	한미약품	878.2	3,957.2
OCI	4,242.5	6,171.0	한국가스공사	2,124.7	2,471.2
기아차	40,194.6	3,408.2	효성	1,830.7	2,079.4
삼성중공업	8,370.6	2,382.9	LG이노텍	5,777.5	1,687.3
현대중공업	12,334.6	1,250.2	코스맥스	3,817.4	796.8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에스엠	1,891.7	CJ오쇼핑	-1,381.7	인터플렉스	711.5	아트라스BX	-1,309.8
아미코젠	1,557.4	씨젠	-1,051.1	아미코젠	596.5	SK브로드밴드	-864.1
젠펙스	1,099.6	SK브로드밴드	-977.5	서부T&D	589.6	인크테크	-802.3
파트론	731.2	하이제1호스팩	-957.3	에스에프에이	518.7	KH바텍	-396.9
서울반도체	618.9	인터플렉스	-859.9	다음	392.0	삼천리자전거	-391.7
유비쿼스	453.5	농우바이오	-848.3	디케이락	386.2	와이솔	-366.5
피엔티	378.1	평화정공	-722.2	CJ E&M	374.5	모두투어	-338.7
삼기오토모티브	375.8	솔브레인	-634.3	인터파크	337.5	네패스	-312.9
동서	374.7	씨티씨바이오	-579.2	KG이니시스	300.6	인프라웨어	-247.2
하림	321.3	엑세스바이오(Reg.S)	-559.7	조이시티	268.4	엑세스바이오(Reg.S)	-242.5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에스엠	1,994.8	게임빌	-452.7	에스엠	1,626.4	CJ오쇼핑	-1,034.5
CJ E&M	187.0	KH바텍	-156.3	태웅	492.4	에스에프에이	-729.5
아이센스	106.3	유비쿼스	-97.4	차바이오엔	440.7	CJ E&M	-682.1
태양기전	98.7	서부T&D	-66.6	포스코 ICT	364.1	골프존	-613.6
가온미디어	95.2	이녹스	-61.7	KG ETS	338.4	태양기전	-504.0
제로투세븐	88.9	포스코캠텍	-40.4	KMH	313.1	위메이드	-459.5
조이맥스	44.6	에머슨퍼시픽	-23.5	제이콘텐츠리	305.5	고영	-315.9
에스에프에이	35.2	성우하이텍	-16.1	진성티이씨	204.8	모두투어	-262.0
옵티시스	32.0	SK브로드밴드	-15.9	평화정공	168.7	뷰웍스	-258.7
고영	27.8	인터플렉스	-13.1	태광	158.1	AP시스템	-239.3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에스엠	110.2	5,999.9	CJ오쇼핑	289.6	2,778.3
조이맥스	59.3	974.1	SK브로드밴드	314.2	2,668.2
파트론	3,297.6	744.5	씨젠	48.1	1,156.4
서울반도체	5,639.6	715.2	모두투어	241.6	944.7
KG ETS	30.0	462.2	위메이드	2,327.9	936.3
다음	112.4	403.5	코나아이	332.4	919.1
옵트론텍	395.6	283.2	농우바이오	559.6	851.1
실리콘웍스	128.7	258.9	바이로메드	445.5	589.3
사파이어테크놀로지	1,555.1	217.0	AP시스템	449.6	319.4
파라다이스	1,029.2	183.4	씨티씨바이오	721.1	223.2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 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12	1403	1406	KSPHCJ3S
기 준 가 격	260.83	263.10	262.60	266.35	-0.40
시 가	263.40	266.45	265.00	267.05	-0.45
고 가	264.38	267.20	266.45	267.05	-0.35
저 가	262.53	265.20	264.85	267.05	-0.45
종 가	263.86	265.50	265.40	267.05	-0.45
전 일 대 비	3.03	2.40	2.80	0.70	-0.05
이 른 가 격	-	265.55	264.65	266.36	-0.90
총 약 정 수 량 *	73,875	127,949	76	1	16
총 약 정 금 액 **	3,341,026	17,020,900	10,094	134	4,249
미 결 제 약 정	-	110440 (1236)	848 (0)	240 (0)	-
배 당 지 수 ***	2.66% (CD금리)	0.00	2.65	2.69	-
반 응 배 수		1.08	0.86	0.00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2.699			
전 일 대 비		0.012			

주: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H9HCS : 9월물과 12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약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 선물 투자자별 매매 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 수	58,365	39,169	24,954	307	1,796	461	2,795	179
	매 도	59,576	37,842	25,933	155	1,407	276	2,515	272
	비 중	46.1%	30.1%	19.9%	0.2%	1.3%	0.3%	2.1%	0.2%
순 매 수 누 적	전 일	-1,211	1,327	-979	152	389	185	280	-93
	누 적	385	1,380	-1,016	71	-1,092	243	229	-154
매 매 편 향 강 도		-1.03%	1.72%	-1.92%	32.90%	12.14%	25.10%	5.27%	-20.62%

주: 누적은 지난 쿼드러플워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 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F KODEX200		
KOSF	280	1.08%	125	3,301	0.00%	NAV (ETF-NAV)%	26,433	26,363	
KODEX200	290	1.12%	6,751	177,569	9.75%		-0.46%	-0.33%	
		KOS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0%	0.01%
종가/100	263.10	262.75	263.69	265.50	264.15	설정주수	0	7000	
eff.delta	0.92	0.96	2.40	0.79	2.38	환매주수	50	3200	
diff/basis	-0.29%	-0.42%	-0.07%	1.64	0.29	상장주수	15950	195500	

주 1: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55	콜평균	0.141	풋평균	0.163	역사적 (5일)	11.9	역사적 (20일)	13.3
월물 행사가격		1310					1311		
		270.0	267.5	265.0	262.5	260.0	267.5	265.0	262.5
Call	가격	1.71	2.57	3.65	5.00	6.65	5.35	6.45	7.80
	전일 대비	0.44	0.66	0.82	1.05	1.30	0.85	0.70	1.20
	내재변동성	14.00	14.20	14.40	14.60	15.10	15.20	15.10	15.20
	거래량	116,041	68,256	17,455	5,867	2,087	450	149	120
	미결제	18,316	10,673	11,908	6,278	8,372	1,162	1,738	767
Put	가격	7.55	5.85	4.50	3.35	2.46	7.60	6.40	5.35
	전일 대비	-1.85	-1.65	-1.40	-1.20	-1.04	-1.65	-1.15	-1.20
	내재변동성	14.80	14.70	15.10	15.30	15.70	14.70	15.00	15.40
	거래량	988	2,219	5,969	17,123	80,707	155	123	175
	미결제	977	675	1,836	3,354	8,369	117	211	245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수	276,594	185,161	56,090	10	1,132	28	3,609	0
	매도	278,995	184,044	55,304	0	1,235	6	3,037	40
	비중	53.2%	35.3%	10.7%	0.0%	0.2%	0.0%	0.6%	0.0%
순매수 누적	전일	-2,401	1,117	786	10	-103	22	572	-40
	누적	-1,638	495	1,937	-5	-1,159	23	486	-172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수	317,468	183,031	68,865	10	104	21	167	4,813
	매도	312,481	182,116	75,811	0	94	2	80	3,895
	비중	54.8%	31.8%	12.6%	0.0%	0.0%	0.0%	0.0%	0.8%
순매수 누적	전일	4,987	915	-6,946	10	10	19	87	918
	누적	13,076	-7,056	-6,117	10	0	27	147	-87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5,040,375	8,909,096	8,983,706	5,041,974	-	-	-	-
	기타	-	-	-	-	-	-	-	-
	합계	5,040,375	8,909,096	8,983,706	5,041,974	0	0	0	0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305	0.12	13,674	0.34	1,453	0.59	96,551	2.38
14,049	5.73	534,711	13.17	16,654	6.79	888,991	21.90		
합계	14,355	5.85	548,386	13.51	18,108	7.38	985,543	24.28	
베이스스 수준	0	0	0	0	0	0	0	0	
차익성 순매수	89064	0	0	0	0	0	0	0	

주 : 차익거래 잔고는 1거래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9/16 (월)	09/13 (금)	09/12 (목)	09/11 (수)	09/10 (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2,013.37	1,994.32	2,004.06	2,003.85	1,994.06	
	이동평균	20일	1,932.48	1,927.69	1,923.98	1,919.97	1,915.43
		60일	1,893.85	1,890.67	1,888.27	1,886.35	1,884.63
		120일	1,920.70	1,920.46	1,920.32	1,919.86	1,919.41
	이격도	20일	104.19	103.46	104.16	104.37	104.10
		60일	106.31	105.48	106.13	106.23	105.81
거래대금(억원)	41,236.8	40,186.0	66,944.5	46,304.7	54,380.4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0.35	0.34	0.57	0.40	0.47	
	투자심리도	80	70	80	80	70	
	ADR	96.35	97.15	96.83	94.69	93.16	
	이동평균	20일	86.59	86.66	86.67	86.83	87.06
	VR	151.56	123.29	121.17	96.39	86.90	
	코스닥시장	09/16 (월)	09/13 (금)	09/12 (목)	09/11 (수)	09/10 (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26.20	530.89	529.58	529.34	523.15	
	이동평균	20일	525.85	527.06	527.96	529.02	530.10
		60일	532.49	532.40	532.32	532.35	532.43
		120일	544.36	544.56	544.71	544.89	545.02
	이격도	20일	100.07	100.73	100.31	100.06	98.69
		60일	98.82	99.72	99.49	99.44	98.26
거래대금(억원)	17,120.6	14,641.7	18,007.6	16,156.0	16,824.8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1.40	1.18	1.46	1.31	1.38	
	투자심리도	70	80	70	70	60	
	ADR	85.23	83.64	83.29	81.58	80.00	
	이동평균	20일	79.93	80.29	80.62	81.04	81.68
	VR	104.19	96.31	100.47	83.15	76.15	
	자금지표	09/16 (월)	09/13 (금)	09/12 (목)	09/11 (수)	09/10 (화)	
국고채 수익률(3년, %)	2.87	2.93	2.91	2.94	2.97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3.27	3.33	3.31	3.33	3.36		
원/달러 환율(원)	1,082.20	1,087.00	1,085.00	1,086.50	1,084.10		
원/100엔 환율(원)	1,093.47	1,087.44	1,090.15	1,080.90	1,087.82		
CALL금리(%)	2.49	2.50	2.49	2.48	2.50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4,926	-3,484	-2,325	-2,742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785	-313	-202	-276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306	-128	-422	-95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467	-1,241	-259	-146		
MMF 잔고(억원)	-	730,363	726,282	712,855	707,179		
고객예탁금(억원)	-	191,912	189,034	188,538	185,788		
순수예탁금 증감(억원)	-	-485	-3,714	-707	-2,499		
미수금(억원)	-	1,445	1,514	1,521	1,490		
신용잔고(억원)	-	43,288	43,129	43,133	43,102		